

光州日熙

기업이 원하던 자리 **지식산업센터** 허드슨 1041 ^{첨단2지구} 분양중 062) 372-6666 시공삼일건설

1952년 4월 20일 창사 2021년 2월 24일 수요일 음력 1월 13일 kwangju.co.kr 대표전화 (062)222-8111 제21452호 1판

광주시 구간 경계 조정 사실상 무산

일부 정치인 ·지역민 거센 반발 민선 7기서도 추진 동력 잃어 인구 편중에 기형적 선거구제 자치구간 균형발전도 어려워져

광주의 균형 잡힌 미래발전 동력이 될 것으로 기 대를 모았던 자치구간 경계조정이 민선 6기에 이 어 민선 7기에서도 사실상 무산됐다.

이용섭 광주시장의 강한 의지에 더해 지역 시민 사회단체까지 자치구간 경계조정을 촉구하고 나 섰지만, 결국 일부 정치인과 지역민들의 거센 반 발 앞에 추진 동력을 잃었다는 분석이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반대여론이 강한 지 역에 공공도서관 건립 등 다양한 숙원사업 해결을 약속하는 방안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했지만,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돼 무기한 보류하고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기로 했다. 시는 자치구간 경계조정 논의를 진행하기가 더 이상 어 렵다고 판단하고, 경계조정 기획단 운영 등도 중 단했다. 자치구간 경계조정은 민선 6기 때도 집중 검토됐으나, 반대 여론에 밀려 2018년 말 무산됐

민선 7기 들어 지난해 10월 이 시장이 수면 아 래 있던 자치구간 경계조정을 다시 꺼내들면서 재 논의에 불을 붙였다. 광주시 경계 조정 기획단 은 곧바로 민선 6기 때 용역자료를 기반으로 공론 화 과정을 거쳐 북구 문화동·풍향동·두암 1~3동 ·석곡동을 동구로 편입하고, 광산구 첨단 1·2동을 북구로 편입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구간 경계 조정 안을 확정한 뒤 같은 해 11월 광주시에 건의했

하지만, 광산구를 중심으로 해당 조정안에 대 한 반대여론이 예상 외로 거세지면서 광주시도 상당한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광주시장 재선도전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 는 이용섭 시장이 차기선거를 1년 4개월 가량 남겨둔 상황에서 평소 자신의 정치적 고향이라 고 밝혀온 광산을 중심으로 갈등・분열이 확산하 는 점에 부담을 가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

워낙 거세고, 찬성 입장에 있는 지역도 별다른 움 직임이 없어 자치구간 경계조정을 추진할 동력을 잃은 상황"이라며 "추후 어느 시점에 지역사회에 서 다시 구간 경계조정에 대한 요구가 커진다면 그 때 다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assion [열정], Vision [習],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렸다. 광주 남구 보건소에서 온 의료진들이 접종방식 등을 연습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지치구간 경계조정이 또 무산되면서 균형 발 전을 기대했던 지역사회의 아쉬움도 커지고 있 다. 이는 최근 10만명을 회복한 동구 인구가 북 구의 4분의 1에도 못 미칠 만큼의 심한 인구편차 를 겪으면서 기형적 선거구 등 각종 부작용이 나 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광주시 인구는 전체 145만여명 중 북구 43만여명, 광산 40만 5000 여명 등 절반이 넘는 인구가 북구와 광산구에 거 주 중일 정도로 인구편중 현상이 심각하다. 특히 인구가 많은 자치구에 예산이 집중되고, 행정서 비스 향상이나 복지서비스 질 등도 자치구별로 격차를 보이는 등 광주라는 한 울타리 안에서도 자치구별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게 광주시의 설 명이다.

이 시장은 지난해 10월 광주 자치구간 경계조정 을 제안하면서 "국가 균형발전이 중요한 것처럼 광주 내부적으로는 5개 자치구간 균형발전도 중요 하다"며 "현재 논의중인 구간경계조정안은 모두 (제가)시장이 되기 전 이뤄졌고, (조정 과정은) 힘든 일이고 인기를 얻는 일도 아니지만 지역 미래 를 위해선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반발 등 지역사 회 구성원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중단하겠 다"고 밝힌 바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서 보험사 콜센터발 코로나 집단 감염

어제 추가 확진자만 15명

최근 진정세를 보였던 광주에서 '보험사 콜센터 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초긴 장하고 있다. 전남에서도 산발적인 지역감염이 이 어지면서 확산세가 우려되고 있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현재 15명 이 추가 확진돼 누적 2012명을 기록했다. 서구의 모 보험사 콜센터 관련자만 10명에 이른다. 이 콜 센터에선 직원이 확진돼 125명이 검사를 받았다. 방역당국은 콜센터 부스마다 아크릴 칸막이가 설 치되기는 했지만, 환기 상태가 양호하지는 않았다 며 추가 감염 발생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 밖에도 광주에선 이날 전북 완주군 자동차 공장 관련 1 명, 효정요양병원 관련 1명,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3명 등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광주에서는 18일 4명, 19일 5명, 20일 6명, 21 일 5명, 22일 7명 등 5일째 한 자릿수를 유지하는 등 일시적 소강세를 보였으나, 보험사 콜센터발 집단감염과 감염 경로 미상, 기존 확진자 n차 감염

등이 이어지면서 대규모 집단감염 가능성이 높아

전남도 좋은 상황은 아니다. 특히 그동안 상대 적으로 코로나 청정지역으로 꼽혀온 완도지역의 코로나 확산세가 우려된다. 완도의 경우 지난 1년 여간 확진자가 단 3명에 불과했으나 지난 22일 한 꺼번에 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완도어린이집 교사 2명과 원생 2명(전남 834~837번)이다.

이들은 같은 날 확진 판정 받은 목포 거주 완도 어린이집 교사(전남 832번)에게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어린이집에서만 하루에 확진자 5 명이 나온 것이다. 전남 832번은 목포 화장품 방 문판매업체발 감염자로 조사된 바 있다. 이로써 목포 방문판매발(發) 확진자는 17명으로 늘었다.

당장 우려는 4명의 확진자가 일시에 나온 완도 어린이집에 쏠린다. 방역당국은 원생 36명, 교사 10명이 다니는 완도어린이집 전수검사가 끝나는 대로 완도지역 어린이집 전수를 검사한다는 계획

/박진표·김형호 기자 lucky@kwangju.co.kr

추신수 국내복귀 신세계에서 뛴다

연봉 27억원 중 10억원 기부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 한 시대 를 풍미했던 추신수(39·사진)가 새 시즌 KBO리 그 SK 와이번스를 인수한 신세계에서 뛴다.

신세계그룹은 23일 "추신수와 연봉 27억원에 입 단 계약을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관련 기사 18면〉 구단은 "추신수는 연봉 중 10억원을 사회공헌활 동에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신수는 롯데 자이언츠 이대호가 갖고 있던 KBO리그 최고 연

추신수는 구단을 통해 "지난해 부상으로 아쉽게 시즌을 마무리했다"며 "MLB 몇몇 팀이 좋은 조건 의 제안을 했는데, KBO리그에 관한 그리움을 지 우기 어려웠다"고 전했다.

봉(25억원) 기록을 깼다.

추신수는 25일 오후 5시 35분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그는 2주간 자가격리를 한 뒤 곧바 로 선수단에 합류한다.

추신수는 부산고 재학 시절인 2001년 MLB 시 애틀 매리너스와 계약하고 미국으로 떠났다. 마 이너리그에서 기량을 키운 추신수는 2005년 빅리 그에 데뷔했고 이후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 신시 내티 레즈, 텍사스 레인저스에 16시즌 동안 통산 타율 0.275, 218홈런, 782타점을 기록했다. 그는 MLB 아시아 선수 역대 최다 홈런, 타점 기록을 남기고 빅리그 커리어에 마침표를 찍었다.

분양사기에 날아간 내 집마련의 꿈

▶6면

KIA 마운드 '더블 스쿼드'로 간다

▶18면



살고 싶은 집 - 광주 화정동 '녹원재'

▶22면



New E. New Attitude.

A new form of Luxury.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에서 직접 경험하세요!



Mercedes-Benz

